

# “맑았던 물 붉게 변한 화순 하천 악취·죽은 물고기 ‘등등’”

### “수백마리 크고작은 물고기 숨 쉴곳 찾아 냇가로 몰려”

### “수달가족 서식할 정도로 깨끗하다”...철저 조사 촉구

“새벽에 하천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전남 화순군 동면의 한 하천 인근 주민들은 20일 이른 새벽부터 “악취로 인해 잠에서 깬다”며 “또 축사가 가족의 분뇨를 방류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이날 오전 찾은 마을 앞 하천은 맑았던 물이 붉게 변해 있었다.

수면 위에는 10cm 정도의 작은거품과 지름 2m정도 크기의 못재 있는 거품이 등등 떠다녔고 냇가 곳곳에 자리잡아 물고기의 호흡을 방해하고 있는 듯했다.

거품을 나뭇가지로 흐트러트리면 악취가 풍겼고 바람을 타고 인근의 주택으로 스며들었

다.

하천의 바닥에는 분뇨로 추정되는 작은 알갱이들이 가라앉아 있어 낱물 원래의 색을 붉은색으로 바꿔버렸다.

이 때문인지 하천 곳곳에서는 하얀 배를 드러낸 물고기들이 등등 떠다니는 모습이 쉽게 목격됐다.

또 냇가에는 수십마리의 크고작은 물고기들이 숨 쉴 곳을 찾는 듯 몰려 있었다.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물고기는 금새 몸이 뒤집어졌고 하천의 물살을 타고 하류로 흘러갔다.

마을주민들은 “하천에서 1km 정도 떨어진 축사가 분뇨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것 같다”

며 “명확한 원인조사와 함께 처벌이 필요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을 이장 이모(66·여)씨는 “지난달 맑은 비가 내렸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며 “당 시에는 원인을 찾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에는 수달가족을 비롯해 많은 새가 살고 있고 인근의 농가들도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 물이 깨끗하다”며 “관계 기관이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축사업주는 “지난 수해 때는 축사의 한 동이 물에 잠겨 분뇨가 하천으로 방출됐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축사에는 분뇨를 정화해 비료로 만드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며 “이날 사고는 100t의 분뇨를 담을 수 있는 4개의 탱크 중 1개의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액체 비료화된 분뇨가 넘쳐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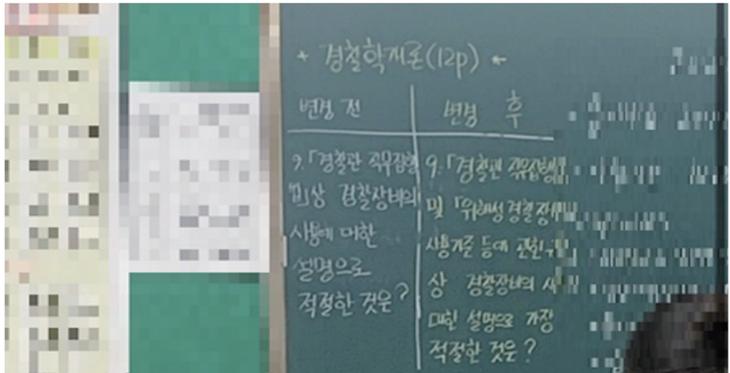
20일 오전 전남 화순군 동면 한 하천이 오염된 가운데 물고기들이 숨을 쉬기 위해 냇가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탱크 시설을 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 순경 공채 필기시험 유출 논란...“시작전 문제 적어 놔”

### “소지품 걷기 전 수정된 문제 공지한 것”



19일 치러진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시작 전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공무원 수험생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날 시험을 치르고 온 수험생들 사

이에서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 중 경찰학개론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문제는 경찰학개론 9번 문제다. 해당 문제는 출제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일부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수험서 등 소지품을 걷기 전 해당 문제가 변경됐다는 공지를 하면서 칠판 등에 문제 내용을 직접 적어 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기 전 해당 문제의 답을 미리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면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치러진 순경 공채 시험은 전국 94개 학교에서 진행됐다. 해당 시험에는 약 5만 명이 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이슬기자

## ‘학생에 성희롱·뽀뽀’ 중학교 교사 해임 처분 정당

### 재판부 “성적 굴욕감 초래...형사 처분 무관한 징계 사유”

학생을 성희롱한 교사가 불기소 처분됐더라도 해임은 적절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뽀뽀를 하거나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았다. 교육청 전수조사 뒤 지난해 5월 일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 양정이 가법다는 이유로 특별징계에 재심사를 요구했다. 특별징계위는 지난해 7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교원 소청위에도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A씨가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하지만, 면담지를 작성한 학생들

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기록만으로는 아동의 정신 건강·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일부 비위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수업 시간이나 학교 내에서 ‘네가 그렇게 입고 와서 짝꿍이 공부 못 한다. 고추 세우지 말고 식 세우라. 옆에 있는 애가 치마를 입어서 흥분했다. 그럴 거면 속옷만 입고 벗고 다녀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등의 성적 언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 광주시, 추석 대비 건설현장 실태 점검

### 내일부터 3일간 관급·민간공사 10곳 대상

광주시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관내 중·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22일부터 24일까지 관급·민간공사 건설현장 10곳을 방문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역업체 하도급 실태

를 파악해 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불법 건설기계 사용 여부 등 건설기계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 등이다.

또 건설현장의 예로사항을 듣고 건설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와 홍보물 배포를 통

해 건설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집중 홍보한다.

시는 실태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시정하고 위법·부당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경호 시 건설행정과장은 20일 “코로나 19로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추석을 맞아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광주 주택가에서 이물질 섞인 수도물

광주 동구 한 주택가에 공급되는 수도물에서 이물질이 흘러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19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부터 광주 동구 산수동·지산동 일대 주택가에서 ‘수돗물 색상이 흐리다’, ‘녹물’이 나오는 것 같다는 신고가 100여 건이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상수도사업본부는 주택가 100

여 가구에 공급되는 수도물에 일시적으로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상수도관과 연결된 소화전을 개방, 이물질 섞인 물을 빼내는 작업을 이날 오후 6시까지 마무리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주변 아파트 단지에 공급한 수도물이 대거 상수도관으로 유입, 유속이 빨라지면서 이물질 섞인 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미희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